

호경기 열기는 9월에나 꺼질 전망

1. 서론

북한은 핵카드를 내세워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 내막을 알 길 없는 세계는 저들이 제2의 후세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세계적 여론으로서 라면 사재기, 주가폭락 등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하겠다.

기아에 허덕이는 인민들을 보면서 핵카드로써 경제혜택을 얻어보려고 한 것 같으나 강경태세로 나오는 것은 쥐가 코너에 몰려 고양이한테 대드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기독교적 사랑의 가슴을 지닌 땅콩아저씨(카터 전 미국대통령)가 김주석과 만났으니 앞으로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지만…….

호수의 물고기가 수질오염으로 폐죽음을 당하고, 때아닌 무더위에 시달리는 요즘, 지구의 멸망은 어떤 연유로든 우리 앞에 한발짝씩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2. 값오르면 고기맛은 더 좋은 법

예전에는 “여름 돼지고기 잘 먹어야 본전”이란 말이 있었다.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먹는다고 우리 선대들은 고기를 먹는 것이 설날, 생일날 등 특별한 날뿐이었고, 식물성만 먹던 뱃속에 갑자기 돼지고기 같은 지방질이 들어가니 배탈이요 설사라, 본전이 될 리 없었다. 국민학교시절 미국의 구호품중에 분유가 있었는데 밀가루처럼 분유로 떡을 만들어 먹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던 우리네 식생활이 먹고 남은 잔반의 처리가 도시에서는 큰 골칫거리가 되고 서울시 청소과에서는 양돈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본회와 협의중에 있다.

여름철 야외로 소풍을 가는 향락객들도 소주 한잔 하는 데 돼지 삼겹살은 단골메뉴란다. 거기다 마늘된장 상추쌈이라! 삼계탕은 옛날 얘기지 요즘 인삼은 옛날 도라지만도 못하게 취급된다. 이토록 즐겨 찾는 돼지 삼겹살이 미국에서는 비인기 부위라 수출업체들은 등심, 안심을 수출하고 수출량에 맞는 삼겹살의 수입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수출협의회에서 '95년도의 쿼타량 한도내에서 수출업체로 하여금 수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요즘처럼 양돈경기가 호황일 때는 돼지고기 맛도 더욱 진미라서 돈육소비홍보가 아닌 소비를 자제하라는 당국의 당부는 고기에 양념을 뿌려주는 격이다. 열심히 먹고 한없이 부풀기만 하면 고무공이 터져 버리는 수가 있음도 생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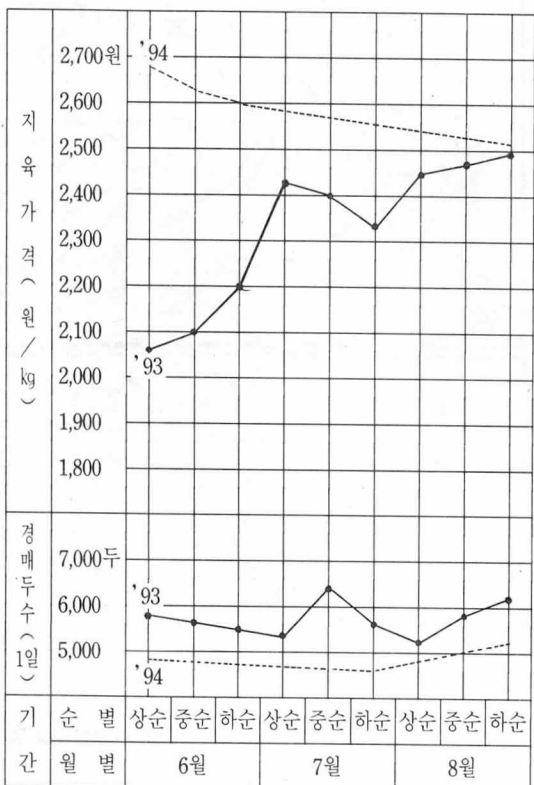
3. 수입육으로 물가잡기는 어려워

요즘 서울 3개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의 마리수는 작년에 비하여 하루에 1천여두 정도 감량 상장되고 있으니 시세가 어찌 아니 좋을 것인가?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에서는 수입돈육의 방출을 더욱 늘리고 있긴 하지만 수입 삼겹살에



정 호 풍
(본회 지도부장)

〈그림 1〉경매두수 및 가격 동향
(서울 3개 도매시장 기준)



대한 호응도가 낮아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초기에 선을 보였던 수입육이 원산지에서 오래 묵었던 것이 많았다는 설이다. 또한 덴마크산 삼겹은 너무 얇아서 숯불구이용으로 부적합하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가 하면 주부들은 신토불이(身土不二)를 외치면서 수입육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것이 정육점들의 얘기도 있다. 절대 물량이 부족하여 수입으로 대체하려 했건만 수개월씩 냉동한 고기가 어찌 신선육과 비

교되리요, 수준이 높을수록 입맛은 까다로운 법. 냉동육에서 냉장육으로 소비패턴이 전환하고 있는 일본의 시장을 고려하고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을 고려한다면 냉장육(신선육) 유통기술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여름경기 보합세, 장마오면 소비증가

정육업자들의 돼지 및 쇠고기 수주형태는 자기 고객들의 요청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판로가 불투명한 수입육을 무턱대고 구매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난 4월초부터 방출개시된 수입돈육의 사용처가 아무래도 점차 확대되어질 것이며, 그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신선육의 수요가 감소될 것이므로 한없이 오를 수는 없으리라 보여진다.

용도별로 구매라인이 안착될 것이다. 그 실례로는 6월 초순에 비하여 중순에는 서울에 상장된 마리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조금씩 내림세를 보였으니(도표 참조) 말이다. 다른 이유라면 보신탕, 삼계탕철임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장마 소식이 들린다. 장마가 오게 되면 일터가 놀게 되고 놀게 되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술과 삼겹살이 대령되어야 하니 그 또한 가격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수입육의 선호도와 소비라인의 확대에 따라서 시세가 좌우될 것인 즉 예상도표는 참고로만 삼아 주면 되겠다.